

<Korean Translation>

How to Enter God's Kingdom (Luke 18:15-27)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눅 18:15-27)

The Greatest Problem with Pride

교만함의 가장 큰 문제

“Oh Lord it's hard to be humble...When you're perfect in every way...
I can't wait to look in the mirror...Cause I get better looking each day...To know me is to
love me...Oh Lord It's hard to be humble...But I'm doing the best that I can”.....

One author has said, 'The life & death of our Lord Jesus Christ is a standing rebuke to every
form of pride to which men are liable.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에 완벽하실 때, 겸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거울을 바라볼 수 없어요...왜냐하면 날마다 나아지기 때문이죠...저를 알아 감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참 겸손하기가 어렵네요...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 저자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모든
교만함을 꾸짖는다.”

- Pride of birth and rank—'Is not this the carpenter's son?' Matt. 13. 55
- Pride of wealth—'The Son of man hath not where to lay His head.' Luke 9. 58
- Pride of respectability —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John 1. 46
- Pride of personal appearance—'He had no beauty or majesty ...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Isa. 53. 2
- Pride of reputation—'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Luke 7. 34
- Pride of learning—“How is it that this man has learning, when he has never studied?” John
7.15
- Pride of superiority—'I am among you as he that serves.' Luke 22. 27
- Pride of success—'He i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Isa. 53. 3
- Pride of ability—'I can do nothing on my own.' John 5. 30
- Pride of self-will—'I seek not mine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John 5. 30
- Pride of intellect—'As my Father hath taught me, I speak.' John 8. 28.'

- 출생과 신분에 대한 교만함 -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 13:55
- 재물에 대한 교만함 -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도다 하시고” 눅 9:58
- 사회적 위치에 대한 교만함 -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 1:46
- 외모에 대한 교만함 -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 53:2
- 명예에 대한 교만함 -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눅 7:34

배움에 대한 교만함 -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요 7:15
우월감에 대한 교만함 -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 22:27
성공에 대한 교만함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사 53:3
능력에 대한 교만함 -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 5:30
의지에 대한 교만함 -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요 5:30
지식에 대한 교만한 -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8:28

C.S. Lewis...the prominent Christian writer from last century: “Through pride the devil became the devil. Pride leads to every vice, it's the complete anti-God state of mind.”

A problem with pride is that we think that we're better than others...but especially -
The greatest problem with pride - whether we realise it or not - is that we think we know better than God Himself...

When we're proud or self-sufficient we assume we don't need God ... as we think we can make up the so-called gap that our sin creates (in our mind) by our own efforts of decency or ability.

When we do that Jesus says not that it's hard to get into God's kingdom...but that it is impossible...pride cuts us off from one another - but the far more dreadful & eternal issue is that it cuts us off from God.

In this first sermon...there is nothing more urgent than taking to heart the point of the passage - pride cuts us off from God...humility opens the way to receive His mercy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Lewis 가 말하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사탄이 되었다. 교만은 모든 악으로 이어지며 ,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다”
교만함의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함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깨달던 깨달지 못하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많이 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 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만들어 내는 그 간격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메울 수 있다 착각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 불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섭고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사실 입니다.

오늘 첫 설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이와 반대로) 겸손은 그의 공활을 받는 길을 열어 줍니다.

Jesus, the Proud, the Humble and the Point (15-17)

v15, 'People were also bringing babies to Jesus to have him touch them.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rebuked them. But Jesus called the children to him and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The word translated 'babies' had a range of ages from newborns even up to 4 or 5 year-olds. The reason their parents were bringing them was so that he would touch them. Why? It was to seek his blessing.

First century Israeli society regarded children as unimportant...unless they were your own...So these people...their parents had heard that Jesus even welcomed and healed lepers...and so why not defy cultural conventions of the time and bring their children?

예수님과, 교만한자와 겸손한자, 그리고 요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기”라 할 때, 이는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4-5살 까지 어린 아이를 의미 합니다. 왜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아기들을 만져 주심을 바라며 아기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을까요?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내 아이가 아닌 이상 어린 아이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서 문둥병자까지 환영하시며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의 문화 관습을 깨고 그들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But the disciples wouldn't have it...so they told the parents to go away; though it was just as much to the infants in saying, 'you're not important'. "Who do you think you are to concern Jesus with such petty and insignificant matters? Go away, He's got more important things to do!" Even after all this time with Jesus, the disciples at this point had hearts shaped by the culture rather than shaped by the Lord...Interesting thing...Jesus response...opposite... rebukes His disciples calls the children & commands His followers to let them be free and unhindered...for the following reason...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달랐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부모들은 내 쫓으려 했습니다. “너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당신들이 뭐길래,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 예수님을 신경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저리가! “예수님께서서는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수만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보다는, 당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은, 예수님의 반응은 이들과 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수님께 올수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We get a clearer picture of what He means in v17 when He says,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In other words, these little ones present a picture of how it is with anyone when it comes to receiving the Kingdom of God...Jesus calls us to think about a baby. A baby can't do anything but cry out for his/her parent for food, warmth, changing, comfort.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this 'receiving the kingdom of God', the point is that it's not about what we do...but what God has done. We can't do anything to earn our way into God's kingdom or, in other words 'earn salvation'.

이 말씀의 보다 분명한 의미를 1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어떻게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기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기는 음식과, 따뜻함과, 안락함을 위해 부모에게 우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 셨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We know Scripture says we're destined to die and after that face judgement for our sin...that means we need saving from God's wrath.

Our sin desperately needs forgiving...another way of putting it, Jesus says is to receive the kingdom of God...and we can only receive it, by being like babies...utterly dependent on God's mercy to forgive. Have you received His forgiveness?

The contrast is in the next story...

성경은, 우리는 모두 죽게 것이며 되어 있으며,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직면할거라 말씀하십니다...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부터 구원 받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는 간절히 용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질 때,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전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용서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이와 반대의 내용을 다음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Jesus and the Proud Man (18-25)

예수님, 그리고 교만한 자. (18-25)

v18, 'A certain ruler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The encounter with Jesus and the man is the complete opposite to Jesus & the babies...Luke identifies him as a 'certain ruler'. Matthew tells us he was young. Matthew, Mark and Luke each tell us he was very wealthy.

'He had riches and authority even though he was still a young man, but he knew he lacked salvation...yet he came with the assumption that there was something he must do in order to earn a spot in eternity...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in other words, 'to receive the kingdom of God.'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이 한 남성의 만남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복음에서는 이 남성을 "어떤 관리"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젊은 자라 표현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매우 부유한 자라 말씀합니다.

이 남성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와 세상 권세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말인즉,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He seems to show Jesus respect when he says, "Good teacher". Yet what we might think was respect, by Jesus' answer shows us it was little more than flattery.

Jesus knew it and refused to be flattered by saying, "Why do you call Me good?...No one is good—except God alone"

Some critics try to say that Jesus is admitting here that He was a sinner...and was confessing weaknesses in His character by questioning His own goodness...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라고 부름으로 예수님께 예를 표합니다. 우리는 그가 예를 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는 아침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답하시며 그의 아침을 거부합니다.

몇 비평가들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심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라 말하며...자기 자신의 선함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구절이라 말합니다.

But when you look more closely, Jesus is cleverly exposing his flattery.

When people use insincere praise it's can be a ploy to manipulate you into doing what they want you to do. Jesus knew the man was trying to praise him...such 'approval' can be an underhand way of a person who wants something.....but what does he want?

An answer to his liking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아첨을 아주 지혜롭게 드러내심을 보게 됩니다.

아부성이 강한 칭찬은 한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될 때, 이 남성이 예수님을 칭송함은 예수님께로 부터 무엇가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함 이였습니다.

Jesus exposes that as well by questioning the rich young ruler's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rue goodness...he wanted Jesus to assure him that he either was or could be good enough for God...we can also be tempted to have a low view of what it means to be good...

Even our language can reflect it... "a game of fetch...bounding over to the stick or ball...picking it up and bounding back to the one who threw it...with patting and praise (how often do you hear it) comes words to the effect of "good boy...good boy...you're such a good boy..."

We use the 'good' word in a relative sense...

Yet the problem comes when we think such relative goodness will impress God...for God defines genuine goodness against His perfect standard...His moral law - the summary of which is the Ten Commandments...Jesus now puts to the ruler

예수님께서서는, 이 젊고 부유한 젊은 통치자에게 참된 선함에 대한 피상적인 질문을 물음으로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남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선하던가, 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예수님으로 부터 원했습니다...우리 또한 이와 같이 이 선함을 낮은 기준으로 보려는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이러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강아지와 공놀이에서) 공을 던지면, 그 공을 물고와 던진 이에게 다시 물어오고, 우리는 칭찬과 함께 토닥거리며 "good boy...good boy"라 하며 강아지를 칭찬 합니다.

우리는 '선함'이라는 단어를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이런 상대적 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데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진정하고 절대적인 선함을 그의 완전한 기준 가운데 정하십니다...그의 도덕적 법... 그 도덕적 법의 요약인 10계명을 통해...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기준을 이 남성에게 적용하십니다.

v20,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ur your father and mother.’”

It’s amazing to see what Jesus is doing…He starts with the second half of the ten commandments that govern how we relate to one another. He started with the easy ones; the ones that many folk keep simply by being virtuous…but He remains silent on the first four of the ten commandments that guide how we relate to God.

V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나타내는 10계명의 후반 부분과 함께 시작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지키는 쉬워 보이는 부분과 함께...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10계명의 초반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심을 보게 됩니다.

v21,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he said.’

You can hear his sigh of relief… ‘Is that all I have to do, Jesus? Well, I have been a good boy, and according to these rules, surely I must be good enough!’

The reality is that sin runs far deeper than rule keeping…the man hadn’t taken Jesus’ sermon on the Mount to heart when He said, ‘anyone who looks at a woman lustfully commits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anyone who seethes with anger towards another murders that person in her heart’ Our default is to think we’re pretty good & that we basically keep the rules.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남성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것들만 다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왔고 이 10계명의 법대로라면 난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고도 남겠네!"

그러나 현실은, 죄는 단순히 외형적인 법을 지키는 것 보다 더 깊은 내면에서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이 남성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말씀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가운데 이미 살인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궤나 선하며, 웬만한 규칙은 잘 지킨다 생각 합니다.

The rich, young ruler…thought his good deeds – even by God’s commandments were good enough…Jesus was even willing to let him think that way for a time so that he would come to his senses, humble himself like he so desperately needed to do & receive God’s mercy.

Jesus may be letting you think that for a time as well…perhaps you’re even here this morning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and thinking 'I'm pretty decent really...no great sinner...no great saint...just better than most...a faithful husband, a good wife, a loving mother...a decent father, an honest worker.

예수님께서서는 이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겸손해 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의 행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잠시 동안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니며...웬만한 사람보다 낮고,...신실한 남편, 선한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 괜찮은 아버지, 정직한 일꾼..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Maybe you're here as you were last week & the weeks before thinking, 'I'm better than most who don't even go to Church...God will be pleased enough to overlook what few flaws I have (after all, no one's perfect & God must know that...surely my attempts at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are acceptable?).

This rich ruler was caught in his own self-deception...he thought he might stand a chance of being good enough for God by keeping the rules. Jesus saw right into his heart...

혹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하나님께서서는 내가 가진 몇 가지 결점을 눈감아 주실 만큼 나를 기뻐 하실거야" (어찌되었건,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를 아십니다...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시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유한 통치자는 자기기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법을 지켜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Any of us who think we're basically good, like the rich ruler...like the Pharisee of the previous parable, like the elder brother of the prodigal son...suffer the same tendency of pride.

We need God's Word & Spirit to expose our sin as Jesus does here - in v22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You still lack one thing.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When he heard this, he became very sad, because he was a man of great wealth.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How hard it is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젊고 부유한 통치자와 같이...전 비유 가운데 나온 바리새인과 같이...돌아온 탕자에 큰 형과 같이 동일한 교만함 가운데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행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Jesus gets to the heart of the first part of the ten commandments in applying the first commandment...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When it was all said and done...the ruler couldn't have it both ways...the wealth and high moral status he'd acquired...he had worked hard for it...it gave him ultimate meaning and purpose...He wanted eternal life...He wanted money more...that was his god before Almighty God.

예수님은 십계명에 첫 계명을 적용시킴으로 십계명 전반부의 핵심을 꿰뚫으십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이 지도자는 두 가지 모두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그가 얻은 그의 부와 명예...그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일한 것...그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 이었던 것...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그러나 그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에게는 돈이 그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Jesus isn't saying we all must take a vow of poverty, or that money is bad...yet the love of remains an all too common rival for God.

Many of us can at times think that our money and reputation are the measures of our worth and in some way the pursuit of them is the place where we find redemption & salvation...

We can depend on our finances and sense of morality for feelings of worth far more than we like to acknowledge.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난해 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며, 모든 돈이 나쁘다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그러나 이런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척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하여 이러한 것을 쫓을 때 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 느끼기 위해 우리의 돈과 우리의 도덕성에 의지하려 할수 있습니다.

Jesus said v25 “Indee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Jesus really meant a literal camel going through the half mm opening of a needle's eye. That's because wealth can give a false sense of security...it can predispose us to proud thinking...that we are self-sufficient – not needing to rely on anyone around us – not

needing God. The disciples thought if anyone was right with God it was the wealthy moralist!
How wrong Jesus said was such a belief.

예수님께서서는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자 그대로, 낙타 한마리가 0.5mm 바늘귀로 들어가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는 우리에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우리로 교만한 생각을 갈도록 합니다...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하여 우리 근처에 있는 그 누구도 의지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만약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다면 이는 부유한 도덕가일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Jesus and the Key to Salvation (26-27)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열쇠 (26-27절)

v26, 'Those who heard this asked, "Who then, can be saved?"

Jesus replied, "What is impossible with men is possible with God."

The tragedy for the rich ruler was that he was trying to work his way to salvation...he thought that obeying the rules was what made him good enough for God...Jesus exposed pride by showing He couldn't even keep the first great commandment to love God.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유한 지도자의 비극은, 그는 구원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될수 있다 생각 했습니다...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십계명의 첫 계명 도차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Nor was he really prepared to love the poor – his neighbours – with the same love that he'd lavished on himself from the time he was a youth...his obedience to the second great summary of the 10 also shattered.

The problem with our sin – particularly our pride is that we think we're far less sinful than we really are & far more moral than we could ever be this side of glory.

(그는 그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함으로) 그의 이웃인, 주변에 가난한 자들 도차 사랑할 마음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디다...이웃 사랑의 실천인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순종 또한 산산 조각 나버림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 특별히 교만함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과소평가 하게 하며,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 입니다.

We can become deluded into thinking that we are good at obeying God's moral law & we overlook the bare fact that without Christ we are all proud, self-righteous, & self-obsessed sinners.

It can only be by the merits of Jesus Christ – perfect man who fulfilled God's Law perfectly & willingly took our place as the great substitute...on the cross to take the punishment for our sin...and give us His perfectly clean slate...and beyond that...to give resurrection life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잘 지킬 수 있다하는 망상에 빠지며,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모두가 교만하며, 자기 의가 넘쳐나며, 자기 집착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고 기꺼이 우리 죄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Jesus and the Constant Need to Bury our Pride

예수님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버려야 할 끊임없는 필요.

It could never be about our goodness...the moment we begin to think it is...is the moment we deceive ourselves with pride.

There is constant need to bury it...i.e. never to take for granted any humble state to which the Lord may have brought us.

Thank the Lord that He did that which we could never do...enter our world, glory veiled, to seek & save the lost...to give His pure grace to justify us before our awesome Maker & Judge.

결코 우리의 선행일수 없습니다...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함은, 교만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말인즉 우리가 겸손하게 뒀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가리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자 심판자 되신 분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위해 그의 은혜를 주신...

That can only happen on God's terms...of surrendering our claims to goodness...surrender the idols of our hearts...our love of money...our prideful tendency to think we're better than we are & instead come to Jesus as needful as a baby to its parent.

We have a Heavenly Father who wants to nourish us in the grace of Jesus Christ...the question remains to whether we will be humble to put pride to death & receive Christ crucified, risen & reigning who gives certain hope of life in His kingdom forever...

이는 오직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가 선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우리 마음의

우상을 포기하며…돈을 사랑함…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자만심을 포기할 때,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아기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여기서 남아있는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죽임으로 겸손해 질것인지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가운데 확고한 소망을 주시는,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의 질문을 물을 수 있습니다…